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윤현지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하와이
파견대학	University of Hawaii	파견기간	2012.08.13-2013.06.01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UH의 경우 강세인 학문은 마린 바이올로지와 관광경영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안 스터디를 공부하여 두 개의 학문과의 접점이 많지는 않았으나, 관광경영의 경우 커리큘럼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짜여있어 후에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 분위기는 대체로 조용합니다.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 보다는 자연과 어울리는 소박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및 인터내셔널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으며 아시안에 대한 인종 차별은 없는 편입니다.</p>
2012-2학기 수업	<p>ASAN 310-Asian Humanites. 에세이의 양이 좀 많기는 하지만 교수님 설명이 재밌고 친근하기 때문에 들을만한 수업입니다. 영상자료도 꽤 많고 대부분 아시안 국가들의 음식 문화 및 발전과정 등에 대해서 수업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수업입니다. 다만, 교수님이 필리피노시라 발음을 정확히 알아듣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추천)</p> <p>ASAN 320K- Nation of Korea. 교수님이 한국 분이신데 엄격하십니다. 에세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따져서 점수를 매기시고 한 번 무단결석을 할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내려가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비추천)</p> <p>Chrous- 합창수업입니다. 출석률을 점수로 환산하기 때문에 점수 받기도 쉽고 나중에 합창 세레모니도 하기 때문에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p>

2013-1학기 수업	<p>Abnormal Psychology- 이상심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수업입니다. 교수가 출석체크도 하지 않고 과제도 없으나 단 세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시스템이니 신중히 선택해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추천)</p> <p>Tea ceremony-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커리큘럼 자체는 괜찮은데 교수가 일본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다도시간을 갖는데 일본말을 쓰더군요.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이 일본이기 때문에 별 거부감 없이 넘어가는 듯 하나 문제는 저 같이 영어나 한국어가 제 1 랭귀지인 학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더군요. 심지어는 학점마저도 편애하는 학생 순대로 주었다는 평이 있습니다.</p> <p>South East Asian Religion-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 세계 30위 내에 드시는 저명한 교수님이시고(아시안종교학관련) 에세이 역시 꼼꼼하게 수정해주시고 개선방향 역시 알려주셨습니다. 수업의 질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풍부한 영상자료를 통해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p> <p>Japanese 101 - 하와이에는 로컬 자패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과 교육내용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p> <p>Guitar 101- 기타를 배우는 클래스입니다. 한국의 수업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하와이의 경우 인터내셔널 학생들과 교환학생 학생들이 타 학교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역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한 예로, ISA(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은 이들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하와이에 아직 익숙지 않은 국제 학생들과의 교류 및 멘토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치투어 등 각종 이벤트들을 만들어 학생들의 친밀도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p>국제교류 담당이신 대렐 선생님과 사라 선생님 역시 학생들에게 무척이나 친절하시며 헌신적인 분들이십니다. 국제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할 때 실시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이 올바른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기후는 항상 따뜻하며 온순합니다. 겨울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리는 우기가 지속됩니다. 건기 중의 비는 Sun shower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우산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	미국의 어느 지역이나 그렇듯, 폴리스 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관광지인 와이키키의 바로 앞에도 폴리스 스테이션이 있고, 학교 근처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Warning system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은 훌륭한 편입니다. 다만 차이나타운이나 늦은 밤의 와이키키의 경우 가끔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께서는 주의를 요하셔야 합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0) 기타()</p> <p>저와 진형이는 마키키에 위치한 하우스에서 한 학기, 그리고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YMCA에서 한 학기를 살았습니다. 저의 경우 YMCA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공동 욕실과 주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학생 분에게는 꺼려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글로벌 빌리지 같은 '거실'개념의 공동 주방 및 공동 쉼터가 1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로컬 스튜던트, 그리고 교환 학생들과의 교류를 대부분 1층에서 해결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플레이 스테이션을 함께 할 정도로 친해졌고, 지금도 자주 연락할 정도로 교류가 깊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 밀 플랜은 절대 신청하지 마세요. 학교 식당 내에서 개별적으로 사먹는 것보다 훨씬 비싸고 밀 플랜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와이의 경우 관광지의 도시이기 때문에 웬만한 음식점들의 값은 미국 본토보다 조금 비쌉니다(한끼의 식사당 팁 포함 12달러 정도). 한인 식당도 많고 한인 슈퍼도 하와이에서는 두세 개 정도 입점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교통	택시는 비쌉니다. 절대 타지 마세요. 기본 3.4달러부터 시작, 약 10분을 주행할 때 10달러가 넘어가는 무서운 교통수단입니다. 대신, UH학생이 되면 학생증을 발급해 주는데, 여기에 붙어있는 교통카드 스티커로 하와이 내 모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트롤리 제외) 여유가 있다면, 중고차를 구매해서 하와이 현지를 돌아다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와이는 정말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들어요.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80만원 정도	왕복 말고 각각 편도로 끊은 합이 180입니다.(120+60)
Fees	없음	없음
보험료	한국에서 LIG 유학생 보험을 들었고 비용은 대략 48만원 정도입니다.	
숙소	룸메가 있을 경우 한 달에 60만원, 없을 경우 약 120만원입니다(하우스 기준). 기숙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비	한달 약 200달러	
교통비	없음(택시비 제외)	
책값	학생들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전공책으로 수업을 나가는 경우 적어도 100달러 이상의 책을 구매해야 하지만 프린트로 수업을 하는 경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합계	생활비 포함 약 2000정도 소비 (1년 기준, 등록금 포함)	







5. 출국 전 준비사항

숙소는 꼭 구하고 가세요. 저와 제 룸메의 경우 마땅한 숙소를 구할 수 없어서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만약 숙소를 구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민박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기숙사를 신청하시고 가면 더 좋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우리 학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날짜보다 데드라인이 빠르니 꼭 유념하셔서 빨리 신청하세요. 아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에서 짐을 적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한 물건은 하와이에 다 있습니다(한국 상비약들 역시 판매되고 있음). ROSS 등에서 브랜드의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 하와이를 위한 옷이나 물건 같은 소품들은 웬만하면 현지에서 사세요. 렌터카를 빌리고 싶으시다면 한국에서 미리 국제 면허증을 따시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와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도시였고, 멋진 관광지였고, 또한 내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와이의 주변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관광지의 도시였기 때문에 클럽 등의 밤 문화 시스템도 잘 되어있었습니다(물론 라스베가스에 비할 바는 못됨). 때문에 성적표에는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각종 알파벳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이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나 좋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한 마음의 힐링이 되었고 깨끗한 공기와 함께 몸도 건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교환학생을 다시 가도 저는 백 번 천 번 하와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학생들을 가실 예정인 학생분들, 감히 충언을 드리는데 공부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어성적과 열정, 그리고 학점에 의해 교환학생에 선발되신, 한마디로 해리포터와 같은 선택받은 아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학문에 대한 열정과 그에 대한 노력을 항상 기울이신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교환학생을 가는 본질적인 목표와 오직 이 기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과제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경험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다니세요.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드세요. 이 하나하나가 한국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 부디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고, 절대로 집 안에서만 있는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충언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Waikiki</p>	<p>Dole Pineapple plantation</p>
	
<p>Hanuma Bay</p>	<p>Sun rising from Koko head</p>
	
<p>Makapu' tide pool</p>	<p>Sun setting from Hawaiiikai</p>